



무주반딧불축제 개막식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 무주반딧불축제, 관광 대상

2년 연속 수상... 올해 8월26일~9월3일 개최

무주반딧불축제가 22일 서울시청 시민청 대강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시상식(주관 한국축제콘텐츠협회/후원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 연속 축제 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5년 연속 정부 지정 최우수축제,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로서 '무주하면 반딧불이, 축제하면 무주반딧불축제'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올해 대상 수상의 기반이 된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20여만 명 방문, 10억 8,000여 만 원 매출 달성)는 △반딧불이 서식 환경 보호활동과 △무주스토리 발굴과 시연, △'무주아리랑' 등 무주만의 공연활동 강화, △반딧

불 등 읍면별 대표 음식을 기반으로 한 향토음식관 운영, △축제장 공원화, △휴게공간의 확대 및 운영, △20들맞이 축제 역사 전시관 조성, △문화교류전 및 팸 투어 등 외국인인을 위한 프로그램 보강 등을 토대로 성공 가도에 오른 지역축제라는 인정을 받았다.

무주반딧불축제는 '99년도부터 2012년까지 14회 연속 정부지정 우수축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 한국지방자치브랜드 대상 축제, 코페스타가 선정한 가장 가보고 싶은 여름축제, 미국 CNNgo가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쇼다리)으로 꼽힌 바 있다.

황정수 군수는 "반딧불축제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

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무주반딧불축제가 5년 연속 정부 지정 최우수축제의 명성을 넘어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은 한국콘텐츠협회가 전국 축제들을 심사해 축제관광과 콘텐츠, 경제, 예술·전통 등의 부문별 우수축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무주반딧불축제를 비롯한 20개 축제가 수상했으며 축제글로벌 명품과 축제프로그램 부문에 대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특별상 10선이 선정됐다.

한편,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와일드푸드축제, 콘텐츠 대상

완주군 대표축제... 지난해 경제부문 수상... 올해 9월 22일~24일 개최

완주군 대표축제인 와일드푸드축제가 22일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한 '2017 제5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을 수상했다.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로컬푸드의 건강함과 즐거운 야생 체험이라는 차별성 있는 테마로 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경제부문을 수상했던 와일드푸드축제는 올해 콘텐츠 부문 대상까지 수상해 명실공히 대

한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열리는 제7회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오는 9월22일부터 24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에서는 천렵과 화덕, 캠핑 등 다채로운 체험과 매꾸기, 개구리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주민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축제다"며 "여타 축제

와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음식 개발에 주력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매년 한국콘텐츠협회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 축제콘텐츠, 관광, 경제, 예술·전통 등 부문별 심사를 민간인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우수축제를 선정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홍삼축제, 콘텐츠 특별상

'특별상 10선' 축제프로그램 우수상... 올해 10월 19일~22일 개최

진안군 대표 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2017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특별상 10선' 부문 축제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지난해 열린 축제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추천·신청 받아 축제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올해로 4회째 개최하는 진안홍삼

축제는 전국 유일의 홍삼특구에 걸맞게 2016년부터 문화관광형 전국 축제로 규모화 하여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마이산북부에서 개최해 약 15만명이 방문하여 75억원의 경제효과와 함께 축제 기간 내 모로코와 모로코 G-Seng사와의 5년간 100만불 MOU 체결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2016 진안홍삼축제는 '진안홍삼, 건강을 쓴다'의 슬로건 아래 축제장 입구에 홍삼차 무한 리필코너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축제 기간 내내 제공 하였으며, 홍삼명

인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홍삼만들기 체험, 믿을 수 있는 가격으로 시중보다 최대 30% 싸게 살 수 있는 홍삼대방출, 홍삼주 담그기, 홍삼간 탐쌍기 대회 등 주제와 부합한 콘텐츠 개발에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

또한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진안의 독특한 문화를 선보이는 태조이성계 몽금척퍼레이드, 중광동, 금척무등 등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봉동읍 15만 자족도시 중추”

박성일 군수 “테크노밸리 2단계·미니복합타운 추진”

박성일 완주군수가 “봉동읍의 경우 완주군이 15만 자족도시로의 비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인 만큼, 앞으로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일 군수는 22일 봉동읍 연초방문에서 “봉동읍은 기업유치와 주택단지 조성,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라는 이점을 살려 인구가 지난달 말 현재 2만6700여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군수는 211만5000㎡ 규모의 테크노밸리 2단계와 9만6000㎡에 3328

세대가 들어서는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가속도를 붙일 것과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봉동읍 주민들은 봉동 중앙로-완주산업단지 간 도로 개설, 만경강 제방도로 마을진출입 회전구간 확장,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등을 요구했다.

박 군수는 주민과의 대화 후 신상리 신상경로당, 은하리 우산경로당, 제내리 신촌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군 2017년 교육지원 공모사업 확정

21개 학교 33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진안군은 21일 33개 사업, 2억5,000만원의 2017년 교육지원 공모사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교육정책 논의를 위해 21일 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인 유근주 부군수를 비롯해 위원 11명이 참석해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주요 안건인 2017년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에 대해 선정기준과 형평성에 맞게 심층 논의했다.

공모기간을 거쳐 총 33개 학교, 50개 사업, 6억4,100만원이 접수된 이번 공모사업은 학생 안전관련 분야,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 기초학력 신장 분야 등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단순 집기·교구구입 사업은 제외하여 21개 학교, 33개 사업, 2억5,000만 원을 확정했다.

전라북도 최초로 지난해 처음 시행한 교육지원 공모사업은 학교·학생·학부모의 필요에 따른 사업을 학교를 통해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호응이 좋아 2016년 2억 3,000원에 이어 올해는 2억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상향했다.

군 관계자는 “전라북도 최초의 만큼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의결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정책 심의기구로서 지금까지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저히하라”

장수군의회 임시회...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22일 임시회를 열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저히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한규태 의원(대표위원)과 다양한 행정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겸한 민간위원(고강영, 이종성, 이도형, 조영호) 4명을 선임, 의결했고,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집행부는 4월말부터 5월초까지 20일간 일정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쌀값 안정 대책에 실패한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를 농가에 책임지우고 있어 억울하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은 장수군의회 의원들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저히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원들은 정부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시도를 즉시 철저히하고 변동지불금도 전액 지급할 것과, 정부와 농협 관계자들에게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정부는 책임지고 쌀값 폭락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장수군, 3월22일까지 주소지 읍·면에서 접수

장수군이 2017년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대상자는 군이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도에서 300명을 선정(시군별 추천·선정 인원수는 별도로 배정하지 않음-경쟁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사람으로 2012년 후계농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경영성과 및 평가를 통해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추진 일정으로 신청은 3월 22일까지, 시군구심사는 3월 23일~31일까지며, 시도의 심사검증 의뢰는 4월 4일, 전문가평가 기관 검증은 4월 5일~21일, 시도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는 4월 28일까지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진안군은 22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2017년 1분기 진안군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는 이창로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17 통합방위 추진계획 보고와, 다음달 8일부터 실시되는 TF(특수리호원) 상황보고,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한 안보동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김정남 피살 사건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역방위태세 확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유사시 상황별, 기관별 조치사항 등을 다각적 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확인·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시민·마을 텃밭 분양 접수 완주군, 3월 3일까지 600명

완주군이 마련한 마을텃밭과 시민텃밭을 일괄 도시민을 모집한다. 22일 군은 마을텃밭 3개소와 시민텃밭 2개소 등 총 5개소를 마련,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00여명의 분양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민에게 분양하는 마을 텃밭 3개소는 삼태을 새터마을, 봉동읍 낙정마을과 혁신도시 인근인 이서면 상개리이다.

또 도시민에게 분양하는 시민 텃밭 2개소는 전주시와 가까운 용진읍 두억마을, 봉동읍 서두마을에 조성됐다.

분양료는 1세대당 33㎡(10평)에 마을텃밭은 연 2만원, 도시텃밭은 연 3만원이다.

이중 시민 텃밭 중 봉동 서두마을은 마을과 회사 간 직접적인 자매결연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이 완료되면 텃밭 개장 전 설명회 및 작물재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텃밭에는 분양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농기구와 모정, 급수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마을텃밭 분양신청은 해당 읍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고, 시민텃밭은 완주군청 농업농촌 식품과 귀농귀촌팀에서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기타 분양 문의는 완주군청(063-290-2472)으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 노인사회활동지원 발대식

무주군 노인사회활동지원 발대식이 22일 무주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회장 이광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사업 참여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참여자 대표 선서문 낭독, 전국웃음노리치유훈회 권수영 회장이 진행하는 ‘즐거움 일터 만들기’ 특강과 ‘낙산안정교육’, 그리고 일자리 관련 간담회 등에 함께 했다.

군에 따르면 2017년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를 통해 추진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돌봄(113명)으로, 일주일에 2~3회(1일 3시간/월 30시간) 연중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경제, 건강이 취약한)를 찾아가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지원과 생활상태(복지, 의료정보제공, 위생상태 확인 등) 점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무주군지회 권은성 팀장은 “노인돌봄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건강한 어르신들을 선발해 또다른 어르신 가정에 파견을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6.25참전 유공자회 무주군지회 안보결의대회 개최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무주군지회에서 주관한 안보결의대회가 22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서 개최됐다. 이날 안보결의대회는 회원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행정태도위원을 비롯한 전라북도지부 이상구 지부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이 시기에 참전 용사 여러분의 자부심을 되살리고 국가와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기회, 여러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대소사가 있을 때면 언제나 여러분이 주인이셨던 것처럼 이번 대회에서도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 여러분의 진면목이 유감 없이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식 회장은 “이번 결의대회가 회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안보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회원들의 활동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차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25참전 유공자회의 회원들은 6.25전쟁에 참전한 후 정역한 군인들로 무주군에는 현재 180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회원들은 해마다 반딧불축제 등 관내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행사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